

네 계절

一년 가운데

네 계절이 있으니,

네 계절이란

봄 여름 가을 겨울이

그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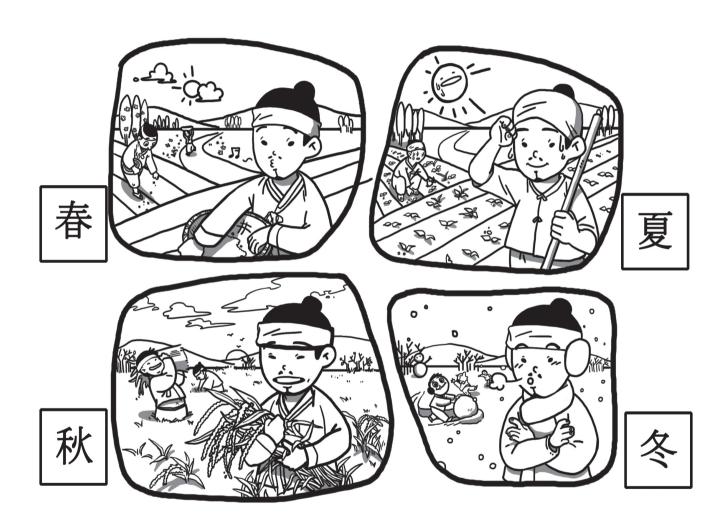
봄에는 만물이 나오고

여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

가을에는 만물이 여물며

겨울에는 만물이 감추어진다. (『계몽편』 「천편」

○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.





한 해 동안 네[四] 계절이 있어요. 봄[春]에는 만물이 나오고, 여름[夏]에는 만물이 자라 나며, 가을[秋]에는 만물이 여물고, 겨울[冬]에는 만물이 감추어진다고 말했어요.

그런데 만물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? 봄[春]이 되면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며 벌과 나비와 온갖 벌레들이 나오니까 만물이 나온다고 한 거예요.

여름[夏]에는 만물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? 풀이나 나무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자라기 때문이지요.

또 가을[秋]에 만물이 여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? 그것은 곡식이나 열매가 익어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. 또 동물들의 새끼들도 자라서 튼튼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.

그리고 겨울[冬]이면 만물이 감추어진다는 게 뭘까요? 나뭇잎은 낙엽이 떨어져 앙상하게 되고, 풀잎은 말라서 죽게 되죠. 그 뿐만이 아니에요. 나비와 벌 등의 곤충들과 벌레들은 다 자취를 감추어버리죠. 그래서 감춘다고 했어요.

자 여기서 만물이란 꼭 만 가지 물건이나 모든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. 주로 동물과 식물을 두고 한 말이에요. 산에 있는 바위나 강가의 돌이나 들판의 논밭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지요.

그런데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도 네 계절에 맞추어 변하지요. 농부는 봄[春]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[夏]에는 곡식을 돌보며 가을[秋]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[冬]에는 저장을 하지요. 또 공장에서도 계절에 맞추어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, 시장에서도 계절에 맞는 물건을 팔아요. 사람들은 계절에 알맞은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, 계절에 맞추어 여행을 가거나 놀이도 해요.

생각해 볼 문제

1. 위의 글에 나오는 (는 네 계절의 이름을 차례대로 써 보시오.
나. 눈싸움을 히 다. 부모님과 함	는 계절을 써 보시오. 는영과 물놀이를 한다 → [] -고 썰매를 탄다 → [] -께 벚꽃놀이를 즐긴다 → [] 서 다 자란 고구마를 캤다 → []
가. 봄에는 만물 나. 가을에는 만	현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세요이 <u>나오고</u> → [] -물이 <u>여물며</u> → [] 교에서 하는 일을 적어 보시오.
계절	하는 일
 봄	
여름	
가을	
겨울	
5. 네 계절이 없는 2	지역의 생활을 조사해 보고 우리와 어떻게 다른 지 말해 보아요.

한자 익히기

1.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.

뜻	봄	여름	가을	겨울	넉	때
한자	春	夏	秋	冬	四	時
음	춘	하	추	동	사	시

2. 다음에 관계되는 낱말의 번호를 아래 (보기)에서 찾아 써 보세요.

 〈보기〉
 ①四時(사시)
 ②春秋(춘추)
 ③春夏秋冬(춘하추동)

나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()

네 계절()

봄 여름 가을 겨울()

3. 앞의 『계몽편』의 내용을 다시 써 보았어요. ()속에 알맞은 한자의 뜻을 써 넣어 보세요.

일 년 가운데

또 四() 계절이 있으니,

四()계절이란

春() 夏() 秋() 冬()이 그것이다.

春()에는 만물이 나오고

夏()에는 만물이 자라나고

秋()에는 만물이 여물며

冬()에는 만물이 감추어진다.



여름 기러기

계절에 얽힌 옛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.

옛날 어떤 권세가 있는 정승이 서울 북촌 고을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벼슬자리하나 얻으려고 그 집에 늘 북적댔어요. 사람들이 벼슬을 얻으려고 뇌물까지 바치면서 하도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대감은 꾀를 하나 냈어요. 누구나 말로 자기를 속이면 벼슬을 주겠다고 했지요. 그런데 여태껏 아무도 그 정승을 속이지 못했어요. 워낙 똑똑했기 때문이에요.

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 말했어요.

"대감, 아까 제가 수표교 다리를 건너다가 기러기 한 마리가 앵두를 물고가다 떨어뜨렸는데, 얼마나 큰지 물동이만 했어요."

"예끼! 이 사람아, 그걸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가? 그렇게 큰 앵두가 어디 있겠나?"

- "아니, 수박만 했습니다."
- "그런 앵두도 절대로 없네."
- "아니, 주먹만 했습니다."
- "그런 앵두를 본 적이 전혀 없네."
- "사실 원래 앵두만 했습니다."
- "그렇지! 앵두가 앵두만 하지 그렇게 클 리가 있겠나?"
- "맞지요? 제가 틀림없이 사실대로 말했지요?"
- "그렇네."

"그럼 저는 대감님을 분명히 속였습니다. 가을[秋]에 날아오는 기러기가 여름[夏]에 나는 앵두를 물고 갈 리가 절대로 없지요."

정승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나오는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.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 젊은이의 지혜가 쓸모 있을 것 같아 낮은 벼슬자리 하나를 주었지요.

관련 인성 가치

정직